

“외국인창업대학 덕분에 사장님 됐어요”

서울시, 외국인 창업 원스톱 지원책 마련



백두대간의 매력에 흠뻑 빠져 최초의 백두대간 영문 안내서를 집필한 로저 셰퍼드(좌) 씨는 외국인 창업대학의 도움으로 산악 체험 여행업체 '하이코코리아'를 성공적으로 창업했다. 사진_연합DB

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유엔은 이미 2007년 대한민국을 이민을 받는 나라, '수민국'으로 선포했다. 광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은 “저출산 추세에 비춰 볼 때 앞으로도 이주민은 계속 늘어날 공산이 크다”고 말하고 “이주민 유입의 순기능을 살리고 이들의 역량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러시아인 올가 사비토브(여·35) 씨는 창업 전에 국내법을 잘 몰라 낭패를 겪은 적이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 자본을 들여오기 전에 외국인 투자 신고부터 해야 하지만 덜컥 사업자금부터 받는 바람에 기업투자비자(D-8)를 못 받게 된 것이다. 다행히 서울시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비토브 씨는 더 단단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서울 외국인창업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창업대학이나 창업 특강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취업이 아닌 창업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점차 늘고 있지만 한국 특유의 사업문화나 법규, 노무 등 국내 사정에 어두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2009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서울글로벌센터 산하에 '외국인창업대학(Business Start-up School)'을 개교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까지 졸업생 334명을 배출했으며 그 중 18개국, 36명의 외국인이 도소매업, 요식업, 교육업, 무역업, 정보기술(IT)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에 성공했다.

교육 과정은 ▲한국의 사업문화 ▲창업 및 투자의 절차·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에 육박하는 시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1년 9월 말 현재 141만8천149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2004년)와 중국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2007년)의 영향으로 연간 10만~15만 명씩 급격하게 불어나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9년에 12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140만 명 고지에 올라 선 것이다.

취업, 결혼, 유학 등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은 이제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국내 사정에 어두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가 설립한 외국인창업대학은 창업하려는 외국인에게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교 3년간 졸업생 334명을 배출했으며 그 중 18개국, 36명이 창업에 성공했다.



서울시가 외국인들의 창업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려고 서울 코엑스에 개설한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지난해 모두 1천460명이 사업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찾았고 이 중 24명은 창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사진제공_ 서울글로벌센터

법규 ▲노무 관리 ▲금융 ▲세무 ▲마케팅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창업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담아 전문 강사가 2주간 영어로 진행한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깊이 있는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원은 25명 내외로 제한되며 시간적, 지리적 장애로 인해 직접 수강하기가 힘든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 놓고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홀로서기 돕는 인큐베이션 사무실

서울시의 외국인 창업 지원은 창업대학에 그치지 않는다. 실무적인 도움을 더 많이 주려는 목적으로 2010년 5월 코엑

스에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천460명이 사업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풀고자 센터를 찾았고 이 중 24명은 창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특히 영어가 서툴러 창업대학의 강의를 듣기가 어려운 비영어권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이외에 중국어와 일어, 한국어 등 4개 언어로 실시한 특강은 열렬한 호응 속에 32회나 열렸다.

아울러 홀로 설 힘을 길러 주기 위해 인큐베이션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다. 입주기간은 6개월이며 임대비와 관리비는 전액 면제다. PC와 전화기, 팩시밀리 등 기본적인 사무기기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내·외국인 전문가에게서 수시로 사업과 관련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인큐베이션 사무실



외국인 대상 보모·가사도우미 파견업체 코코로 베 이비시터의 니이누마 치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회사 설립 두 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며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렸다. 사진제공_ 서울글로벌센터



은 강남센터의 3실에 올 1월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 입주한 여의도센터의 1실이 추가됐다. 강남센터는 1인 1실이고 여의도센터는 5명의 예비창업자가 함께 사용한다. 집중적인 보육을 통해 빠른 시일에 창업에 성공한 이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입주 경쟁률은 평균 4대 1을 넘는다. 창업대학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주지만 창업대학 입학 역시 평균 3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므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백두대간에 매료된 뉴질랜드 경찰, 한국에서 사장님 됐다

“백두대간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산이자 훌륭한 문화공간입니다.”

뉴질랜드 경찰 외교경호부대의 경호요원이던 로저 셰퍼드(남·46) 씨는 친구와 함께 2007년 9월 백두대간 중주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 산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 향로봉까지 735km를 70일 만에 주파한 이들은 2년간의 원고 집필과 1년간의 편집 과정을 거쳐 책을 펴냈다. <Baekdu-daegan Trail: Hiking Korea's Mountain Spine>(백두대간 등산로; 한국 산맥의 척추 중주하기)는 최초의 백두대간 영문 안내서이자 외국인이 백두대

간에 관해 쓴 첫 번째 책이다. 셰퍼드 씨는 “히말라야를 세계에 알려 유명하게 만든 서구인들처럼 백두대간을 널리 알린 첫 외국인이 되고 싶었다”고 집필 목적을 밝혔다.

셰퍼드 씨는 창업대학을 거쳐 2010년 5월 인큐베이팅 사무실에 입주해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한 담금질을 했고 6개월 후 산악 체험 여행업체 ‘하이크 코리아’를 성공적으로 창업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10월 함경남도과 평안북도의 북한 백두대간 지역을 다녀온 데 이어 올 5월에는 개마고원과 백두산 답사를 끝마친 후 <백두대간 북한편>(가칭)을 발간할 계획이다.

틈새시장 찾아 창업한 ‘일본맥’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코코로 베 이비시터’는 보모나 가사도우미를 외국인 가정에 파견하는 업체다. 코코로에 고용된 외국 출신 주부 40여 명은 수년간 한국에 거주해 이미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다.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를 돕고 때로는 말 상대도 돼 준다. 코코로는 설립 두 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장인 니이누마 치카(여·31) 씨는 일본 출신 귀화인으로 창업대학 졸업생이다. 치카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을 성공 비결로 꼽는다. 결혼과 함께 2008년 한국에서 살게 된 그녀는 낯선 문화와 서투른 언어 탓에 우울증 직전까지 갈 정도로 외로움에 시달렸다. 이제는 한국말이 능숙해지고 친구도 많아졌지만 당시에는 일본어로 대화를 나눌 상대가 절실했다고. 치카 씨는 “창업대학을 통해 한국의 사업문화와 한국인의 사고방식 등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하고 “특히 노무 관리 수업시간에 배운 고용 시의 유의사항은 실제로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녀 역시 인큐베이션 사무실 덕을 톡톡히 봤음은 물론이다.

연봉 1억 원 꿈 이룬 중국인 청년사업가들

5년 전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 왕준립(남·27) 씨와 장진개(남·27) 씨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사업가와 관광객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리라 예측하고 이들을 겨냥한 사업을 구상했다. 두 사람은 중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포털사이트 ICNKR을 기획했다. 하지만 한국어도 서투른 판에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고객은 어떻게 유치해야 할지, 회사를 차리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할지 등등 막



외국인창업대학은 올해 실무 심화 과정을 신설한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4월에 희망자를 접수해 첫 발을 댄다. 여의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 사진제공_ 서울글로벌센터

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때에 창업대학이 결정적인 돌파구가 됐다. 졸업 후 인 큐베이션 사무실에 입주하는 동안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확고하게 사업 기틀을 잡은 것이다. 각종 행정 절차가 손쉽게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 게다가 사무실이 국제 상거래의 중심지인 코엑스에 위치한 덕분에 좋은 평판을 얻고 다수의 고객 유치에도 성공했다.

ICNKR은 현재 약 190만 명의 중국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방문자가 3만 명도 넘는 국내 최대의 중국인 대상 포털사이트다. 중국인을 상대로 사업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앞다퉈 ICNKR과 계약을 맺은 덕분에 매출이 급증해 두 청년사업가는 성공의 상징인 연봉 1억 원 대열에 합류했다.

2012년에는 내실 더 키운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창업대학의 교육 과정을 더욱 알차게 꾸릴 계획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4기,

100명으로 수강생을 한정하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월과 6월, 9월, 11월에 각각 개강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신설된 실무 심화 과정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4월에 1기 졸업생 중 희망자를 접수해 강남센터와 여의도센터에서 출범한다.

직접적 자금 지원에도 나서서 창업대학 출신이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5천만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강선섭 서울시 외국인지원생활과장은 “국내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창업이 내국인보다 몇 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창업대학 수료 후에도 전문가와의 1대 1 상담 등 추가 지원을 강화해 내실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과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 창업 최소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므로 “외국인이 창업에 성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